

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세션 6

미덕 윤리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덕 윤리에 대한 6번째 세션입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가 도덕 이론에 대한 조사에서 살펴볼 다음 주요 도덕 이론은 덕 윤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리주의와 그들의 유용성 원리와 같이 도덕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어 도덕적 원칙의 역할을 강조하는 몇 가지 도덕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칸트 윤리에서 중심 원리는 범주적 명령이며, 사회 계약 이론에서 다양한 원칙과 기본 권리가 거기에 식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대적 도덕적 전통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윤리적 측면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윤리적 탐구의 초점입니다. 덕 윤리는 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지만, 최근의 움직임만은 아닙니다. 덕 윤리는 확실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대의 덕 윤리의 일종의 르네상스였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도덕적 전통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덕 윤리의 독특한 접근 방식은 도덕적 원칙보다는 성격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덕 윤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되는 어떤 종류의 궁극적인 규칙을 찾는 데 관심이 없지만, 덕 윤리에서 초점은 뛰어난 성격 특성, 이상적인 도덕적 표본의 다양한 특징, 성격에서 모든 종류의 특별한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덕 윤리학자들은, 윤리에서 적절한 초점은 원칙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도덕 이론이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아닌 원칙에 모든 관심을 기울인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덕 윤리의 가장 뛰어난 지지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 할아버지와 아버지였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확실히 덕 윤리학자였으며, 덕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획기적인 책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덕 윤리학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서양 사상사에서 덕 윤리학의 의제를 정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하는 포괄적인 질문은 인간에게 포괄적인 선 또는 텔로스가 무엇인가입니다. 텔로스는 목적, 목적, 목표, 목적 또는 기능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는 우리의 궁극적인 텔로스, 궁극적인 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의 답은 따뜻하고 흐릿한 감정의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인 웰빙의 의미에서 행복입니다.

그리스어 *eudaimonia*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용어와 연관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행복 개념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웰빙은 우리의 포괄적인 선이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간에게 *eudaimonia*를 경험하거나 달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의 특정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에 의해 정의되거나 결정될 것입니다. 침팬지나 돌고래 또는 개의 기능과 대조적으로 인간으로서 우리의 고유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에 특유한 어떤 종류의 독특하고 고유한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우리를 인간으로 구별하는 것은 이성에 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동물과 구별하는 것이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궁극적인 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의 가장 좋은 삶, 인간에게 행복한 삶은 관조의 삶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이유입니다. 그는 관조의 삶이란 그저 앉아서 상상하고 성찰하고 명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때때로 그럴 수도 있지만 관조의 삶, 이성의 삶은 또한 매우 활동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성과 신중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적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방식, 우리가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 우리가 의학을 실천하는 방식,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 우리가 사업을 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가장 합리적이고 관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명상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웰빙 또는 번영의 삶입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다른 삶의 선택과 다른 삶의 방식에 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종류의 삶을 구별하고 관조적 삶의 우월성을 지적합니다. 사실, 플라톤은 그의 공화국에서 같은 것을 합니다. 그것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들은 많은 것에 대해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세 가지 일반적인 종류의 삶이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나는 즐거움의 삶으로, 주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특히 돈의 형태로, 부를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즐거움의 삶에 헌신하는 사람은 항상 돈에 집착하고 돈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즐거움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즐거운 삶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고 평생 그에 따라 살아요. 그런 삶의 문제점은 돈이 단지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당신은 그 돈 자체를 즐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이 인간에게 궁극적인 선이 아니라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선이 무엇이든, 그것은 다른 것들을 위한 수단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당신에게 촉발해야 할 것은 내가 이 모든 돈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알아내는 탐구입니다. 이 모든 돈보다 더 높고, 더 좋고, 더 영구적이고, 더 고귀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의 삶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안적인 삶의 종류이며, 그 목표는 명예와 명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거나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회에서 잘 알려지기를 매우 열망하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어느 정도 정치적 지도자가 되는 영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에서 경력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유명한 가수,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가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이것이 정치가의 삶에서 가장 잘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를 취하든, 정치가의 삶, 명예와 명성을 얻는 사람의 삶은 너무 피상적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너무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적이예요. 다른 사람들의 변덕에 너무 많이 의존해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당신의 앨범을 더 이상 사고 싶지 않고, 당신이 연주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당신이

더 이상 직위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선이 무엇이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변덕과 선호도에 그렇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두 종류의 삶은 모두 이상화하는 삶의 종류라는 측면에서 실패합니다. 그것이 단지 수단이거나 그렇게 피상적이라면 인간에게 궁극적인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지혜, 지식, 이해를 추구하는 관조적 삶입니다. 그것이 관조적 삶의 목표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 특정 목표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지식은 그 자체로 귀중합니다. 지혜는 그 자체로 귀중합니다. 또한 매우 실용적이잖아요. 지식이 있으면 건물과 비행기를 건설할 수 있고,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옷을 만들고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얻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도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명성처럼 쉽게 우리에게서 빼앗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안전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잠언 4:7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당신에게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혜와 이해를 얻으라고 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혜와 이해력을 얻으십시오. 우리는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그 명령을 발견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실제로 매우 성경적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선은 지혜와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가치 이론에 관한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치와 정치 철학입니다. 그는 이 책,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정치의 일종의 선구자로 보았습니다.

아니면 정치술. 정치는 가장 좋은 의미로 이해됩니다. 제 말은, 요즘은 더러운 단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때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삼촌을 흥분시키지 마세요. 그는 정치를 국가 운영과 정의로운 시민 사회를 건설하는 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토론으로 여기까지 왔더라도, 우리 모두가 정의로운 시민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윤리와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 시민으로서 어떤 성격적 특성을 가져야 할까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괜찮은 시민이 최소한 삶에 미덕을 갖추고 살지 않고서는 정의로운 시민 사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텔로스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처럼, 이것이 우리가 탐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탐구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물의 목적, 기능 또는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여기서 사실입니다. 인간의, 독특한 인간의 선은 무엇인가? 그리고 미덕의 개념은 정말로 이것에 의존합니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기능이나 목적, 목표를 달성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덕이 있는 것 또는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능을 달성하는

컴퓨터가 있다면 , 그것은 훌륭한 컴퓨터이고, 덕이 있는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정한 우수성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교사, 간호사, 빵 굽는 사람, 촛대 제작자로서 자신이 처한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맞죠? 건설업에 종사하든, 이발사든, 의사든, 변호사든, 여러분은 특정한 직업적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덕이 있는지, 빈칸을 채우세요, 변호사, 의사, 교사 등인지를 결정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 측면에서도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삼촌, 형제, 아들, 아버지, 남편입니다. 저는 다양한 중요한 관계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친절하거나 관대하거나 용감하다고 부를 수 있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요청받는 특정한 삶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당신은 덕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이 모든 삶의 상황, 맥락, 역할,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맥락에서 덕이 있는 행동을 하는 덕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미덕, 인간의 미덕은 특정한 삶의 맥락에서 제대로 기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두 가지 기본적인 미덕 종류 또는 두 가지 주요 미덕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입니다.

지적 미덕은 교육, 공부, 수업 과제 수행, 강의 듣기,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 개발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도 그저 그렇게 함으로써 온갖 지적 미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공부와 교육을 통해 특정 주제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미덕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도덕적 미덕을 키울 수 없습니다. 위대한 도덕적 모범에 대한 영감을 주는 책이라 할지라도요. 테레사 수녀, 아타나시우스, 넬슨 만델라, 마틴 루터 킹에 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렇죠? 존경할 만한 또는 미덕적인 성격적 특성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그들의 삶에 대해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개인 전기를 연구하는 것. 비슷한 미덕을 개발하기 위해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미덕은 훈련, 의도적인 연습, 좋은 습관의 발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예술, 음악 또는 운동 훈련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래리 버드와 매직 존슨에 대한 책을 읽는 것만으로 될까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와 제임스 하든, 훌륭한 농구 선수에 대한 책을 읽는 것만으로 될까요? 그것으로 될까요? 아니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을 가지고 나가서 훈련, 패스 훈련, 자유투 훈련, 슈팅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농구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하세요. 물론, 읽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다른 선수들이 경력에서 무엇을 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덕을 같은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피아노 연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공부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음계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용감한 사람, 더 정의로운 사람, 더 관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정한 미덕의 행동 양식을 실제 연습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당신은 반복적으로 덕행을 행함으로써 좋은 도덕적 습관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화에 강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대한 일함으로써 관대한 습관으로 우리 자신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초기에 우리 둘 다 원하는 만큼 관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인색하거나 탐욕스러웠던 것은 아니지만, 그저 이런 미덕을 키워야 한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빙하는 사람이 적어도 괜찮았을 때 후하게 팁을 주는 것을 일종의 표준 관행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면, 글썄요, 고치는 건 다른 문제죠. 나쁜 습관이에요. 많은 종교인들이 팁을 잘 주지 않거든요. 식사 때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면, 적어도 15%는 팁을 줘야 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서비스가 적어도 괜찮았다면, 좋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그 이상으로 팁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관대한 습관의 일종의 연습과 발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종류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의도적으로 미덕을 실천하고, 결국 그것은 어떤 종류의 성격적 특성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수년, 수년, 수년 동안 하고, 결국 당신은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격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미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게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면 결국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용감하게 행동하면 결국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미덕은 훈련을 통해 생겨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미덕에 대해 언급한 또 다른 점은, 적어도 도덕적 미덕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사악한 극단 사이의 중간 지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도덕적 미덕은 두 가지 악덕 사이의 중용입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심도 있게 탐구한 15가지 정도의 미덕 중 하나인 이 미덕 표를 생각해 보세요. 위험과 같은 특정한

맥락이 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무언가를 해야 하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결핍의 편에 설 수도 있고, 과잉의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결핍의 편에서, 그 악덕은 비겁입니다.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 되어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과도함의 측면에서, 당신은 무모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맥락에서, 당면한 임무가 용기를 요구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어쩌면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겁쟁이는 내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글썄요, 당신의 지휘관이 그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겁쟁이야. 무모한 사람은 말한다, 가자, 나는 지금 준비가 됐어. 글썄, 우리는 이것 신중하게 계획해야 해.

중요한 전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자. 뛰어들자.

그건 무모한 짓이에요. 용감한 사람은 알죠, 알았어요, 우리는 이것 위해 훈련할 거예요. 위험하지만, 우리는 이것 제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할 거예요. 그게 임무를 완수하는 것과 일관되죠.

그러니까 그게 용기입니다. 그것은 극단, 비겁함과 무모함의 사악한 극단 사이의 중용입니다. 쾌락의 맥락에서, 당신은 무감각해지고 모든 쾌락을 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방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 말입니다. 절제는 그 극단 사이의 중용입니다. 소유물에 관해서는 인색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존 폴 사르트르처럼 엄청난 기부자가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카페에 가서 커피 몇

잔을 마시고, 그냥 카페 테이블에 엄청난 뭉치의 지폐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웨이터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의 개인 재정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꽤 잘 팔리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관대함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인색한 편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용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비겁한 편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오류를 범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글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때때로, 이런 위대한 산악 등반가, 암벽 등반가들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떨어져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기부를 하다가 끔찍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덕의 중용을 이루고자 합니다. 여론, 우리는 사소하고 싶지 않지만, 허영심이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어떤 건강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락, 당신은 무례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광대가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것들은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성가신 악습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게 농담뿐인 적이 있나요? 그들은 결코 진지하지 않아요. 그건 광대예요. 하지만 무례한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그들은 지루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성가신 사람들이예요.

재치 있는 사람은 농담, 재치 있는 관찰, 재치 있는 발언으로 대화와 관계에 경박함을 만들고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중용, 덕이 있는 중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에 관해서는, 당신은 어리석어 보이고 싶지 않지만, 뻔뻔스러워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 겸손함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뻔뻔스러운 문화권에서는 겸손함이 많은 사람에게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특정 문화권 내의 특정한 과잉과 부족이 어떻게 특정한 미덕을 악덕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많은 면에서 많은 기독교적 미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덕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가 여러 면에서 매우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 표의 일부에 불과하며 그가 어떻게 그것들을 사악함의 극단 사이의 미덕적 수단으로 분석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도덕적 미덕을 개발하는 데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은 도덕적 본보기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덕을 키우는 데 충분하지 않지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덕이 있는 사람, 즉 특정 덕의 모범이 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의 덕이 있는 사람들의 모든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 속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을 멘토링했거나 적어도 당신의 존재 속에서 살아서 당신에게 특정한 미덕을 강조하거나 본보기로 보여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합니다, 와, 저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 특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미덕을 개발할 때 우리의 도덕적 삶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미덕은 또한 개인적 서사와 커뮤니티 내 사람들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미덕 윤리 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더 현대적인 미덕 윤리학자인 알리스테어 맥킨타이어 는 실제로 1981년 그의 책인 *After Virtue*가 출판된 후 미덕 윤리의 부활이나 르네상스를 이끄는 선두에 섰습니다. 그는 서사와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이야기에 매우 강한 강조점을 둡니다. 그리고 저는 미덕 윤리에 대한 다른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의 특정 역할이 이야기 속 인물과 어떻게 비슷한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특정 서사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에 따라 틀지어지거나 틀지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기능.

그것은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거나, 특정한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 커뮤니티나 기관 내에서의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미덕의 종류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두껍게 하고 살을 붙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미덕 윤리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지역 사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 삶과 선을 추구하는 데 대한 많은 통찰력과 영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덕 윤리가 제공하는 이러한 도덕적 동기는 덕 윤리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독교 관점에서, 덕을 위한 훈련이라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신약을 읽더라도 일반적으로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 덕을 위한 적극적인 훈련에 대한 강조가 있지만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몇 군데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그는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올림픽 경기를 위해 훈련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규율과 활력으로 훈련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그들이 오래가지 못할 면류관을 위해 훈련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무언가를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을 위해 훈련하는 데 얼마나 더 헌신해야 할까요? 그는 디모데전서 4:7과 8에서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데, 경건하게 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영적 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함을 위해 어떻게 훈련합니까? 글쎄요, 훈련된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훈련된 방식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금식하고, 명상하고, 예배합니다.

당신은 때때로 고독, 고백, 복종을 실천합니다. 당신은 경건해지기 위해 훈련할 수 있는 이 모든 영적 훈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예배와 기도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것들은 고독과 금식과 같은 자기 부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지식 기반, 공부, 명상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모든 영적 훈련은 우리 안에 특정한 성격적 특성을 개발하고, 우리를 성화로 성장시키고, 우리를 영의 사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칸트나 밀, 벤담, 사회 계약 이론가들은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것에 실제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덕 윤리학에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습관과 규율을 통한 도덕 형성에 중점을 둡니다. 이것은 여기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약성서를 읽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약성서보다 약 4세기 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적으로 이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덕을 쌓는 훈련의 이점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언급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칸트, 벤담, 밀과 같은 철학자들이 지지하는 공평성의 이상에 대한 의심도 있습니다.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완전히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 윤리는 관계와 공동체에서의 위치에 대한 모든 강조점, 독특한 방식으로 자리 잡은 곳, 가족 및 친구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사 등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는 편파성을 보이는 것이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공리주의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칸트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자. 당신은 두 사람과 함께 카누에 타고 있다.

암 치료법을 알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종양학자. 그녀는 스스로 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녀는 암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축하의 의미로, 그녀는 당신과 함께 카누 여행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와 함께요. 카누에는 암 치료법을 아는 종양학자인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칸소 강을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화하는 동안, 당신은 이 종양학자가 실제로 수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좀 불안하네요. 그러다가 당신 엄마도 수영을 못한다는 게 생각납니다.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아실 겁니다.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동시에 깨닫습니다. 우리는 폭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억나는데, 아칸소 강에 정말 가파른 폭포가 있어. 50피트 정도야. 아, 우리는 가라앉았어.

우리는 문자 그대로 가라앉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썄요, 지금은 폭포에 너무 가까워서 나와서 어머니와 종양학자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명은 구해야 합니다.

당신은 수영을 잘해요. 하지만 당신은 초인은 아니에요. 당신은 한 명만 구할 수 있어요.

누구를 구하시겠어요? 엄마를 구하시겠어요?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는 암 치료법을 모르세요. 결국 엄마는 나이가 많으셨어요. 아니면 암 치료법을 알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종양학자를 구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리주의자의 답은 분명합니다.

종양학자를 구해야 해. 미안해, 엄마. 사랑해, 하지만.

그리고 칸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적어도 칸트 윤리에서는 엄마를 구하는 게 괜찮다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편화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매우 명확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구합니까? 당신의 엄마.

왜? 그녀가 당신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엄마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성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합니다. 그건 그렇고, 칸트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그 성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폄하하고 피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이 완벽하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엄마를 구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의 직감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를 구하는 건 괜찮아요.

종양학자가 아니라 그녀를 구하는 건 적어도 괜찮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도덕 이론 중 일부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편파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소위 공평성의 이상. 어떤 맥락에서는 이상일지 몰라도 다른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덕 윤리의 강점이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덕 윤리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올바른 행동이나 의무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는 의무에 대한 실제적인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성격 특성이 이상적인지 알려주는 데는 좋지만, 의무와 책임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는 미덕 윤리에서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수행해야 할 올바른 행동이며 특정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도덕적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미덕 중 어느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지 고려할 때 발생합니다. 가끔 아내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니? 다행히도 대부분의 날 대답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나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야, 너 정말 멋져 보여.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머리 스타일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그 특정 옷이나 앙상블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

글쎄요, 저는 친절하고 싶어요. 그녀가 비판적인 말을 할 기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치마는 당신을 좀 촌스럽게 보이게 해요. 그래서 저는 친절하고 싶지만, 솔직하고 싶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협의회에서 미덕 윤리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최근 보험 회사의 광고에서 에이브러햄 링컨과 그의 아내 메리 토드가 나오는데, 실제 영상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흑백입니다.

1860년대에 비디오 기능이 있었던 것처럼 매우 거칠다. 어쨌든, 메리 토드가 말하길, 이 드레스를 입으면 내가 똥똥해 보이니? 물론, 그녀는 좀 통통해. 정직한 에이브가 있어.

그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서 그녀가 짜증이 나지만, 그는 정직한 에이브입니다. 그가 아내의 감정을 아끼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정답에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진실된 답은, 네, 당신은 살찐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살찐 편이 거든요. 하지만, 덕 윤리에 관해서는, 우리는 어떤 특정한 덕이 다른 덕보다 우선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알고리즘이나 방법이 없고, 그것은 덕 윤리의 확실한 한계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이론과 마찬가지로, 덕 윤리는 어떤 면에서는 강력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약해서, 다른 도덕적 고려 사항과 이론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종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덕 윤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덕 윤리에 대한 세션 6입니다.